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2호 현대불교

29

2011년 11월 16일(음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모든 것 주인공에다 탁 집어던지고 웃으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을 거것으로 알지 말고 진정고 거기다 말고 진정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납득이 되고 바로 감응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면 그것이 바로 반야줄을 잡는 법이요, 여의주를 잡는 법이요, 바로 여의주를 잡고 올라 가면 자기가 여의주와 둘 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의주, 마니주, 구슬! 이 구슬이 바로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이 우주 법계가 다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본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아니, 하나로 돌아갈 게 어디 있나요?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걸요. 하나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이것이 먼저지 이것이 나중에 할 수도 없죠. 그냥 마음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대로 공동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대로 높고 낮지도 않게, 물질세계 정신세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용이예요.

보세요. 전자와 전자를 양쪽에 쥐고선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전자줄은 불켜는데 등잔과 같은 거죠. 그렇게 전자줄을 갖다 대 가지고 불이 켜졌을 뿐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한 생각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리를 먼저 말고 너부터 먼저 알아서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돌 아나게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크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우주 법계를 티끌 하나에다가 집어넣어도 자리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면서도 작고, 이렇게 작으면서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찾아오는 분마다 “아이고! 병원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인됐지만 어떡할까요? 그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 놓고 웃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자기 몸을 자기가 살렸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 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그것을 모두 봤으니까 배웠고 알았고 그랬지, 그것들이 없었다



그림 · 최주현

면 내가 어떻게 알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내 벗 아닌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고 모두가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훌륭하게 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고 공부를 안 하고 기술해서 잘못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천차만별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서 모두 그저 밝게 사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들어

오고 나가는 전력은 둘 아나니 전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자식이다 부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가설이 된 거예요. 가설이 된 거란 말입니다. 부모다 자식이다 행제다 하는 게 가설이 된 거죠.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내 주인공에 불을 켜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왜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이러느냐” 하고 들어오면 욕을 하고 때리니까지도 하는데 그러다보면 점점 더 못되게 굴다가 아예 마구니가 돼 버려요. 그러나 “애, 어디 가서 배고프지 않았냐? 난 너 걱정 많이 했어.” 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부드럽게 싸 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바깥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 마음이 잘못된 거를 말로 고치려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잘못돼서 행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하는 거지요. 강도질도 하고 깡패질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마구 살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일도 저지르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야죠. 그래서 내 자식이 그럴 때는 ‘주인공, 저 뿌리나 내 뿌리나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게 되죠. 마음으로 고장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서 불이 켜지니까, 환하게 밝아지니까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여기 대중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형제를 이끌어 나가고 자식을 이끌어 나가고, 또는 고집이 센 부모나 그런 분들도 서로가 고쳐 나가고 잘 이렇게 의합해서 잘된 분이 많죠.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쁘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때는 그러죠. “잘났든 못났든 말아야, 이 공부 하는 데 돈이 드니 걱정이야,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니 걱정이야, 재산을 누가 뺏어 가니 걱정이야? 왜 못해?” 이렇게 합니다. 하하하...

회사를 해 나가시면서 이 공부 하는 분들을 보면요, 요새 회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하하...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그러던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던가. 그리고 직원들이 내 일같이 제대로 해 주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공부 해 나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감쪽같이 해 나가요. 왜냐하면 기계도 바로 주인 짓이고 그 직원들도 주인이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전부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예요.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자기 것도 하나도 없죠. 기계조차도 ‘너도 생각이 있잖아. 주인공은 둘이 아닌데, 네가 네 일 하는 건데 잘해야 하잖아.’ 하니까 다 닦아서 고장이 나고 그러던 것도, 검사하러 나왔는데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나가니까 그게 털려 서터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닦아서 끊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요. 꽃도 생명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읽어요. 돌도요. 그냥 우뚝우뚝 선 건 줄로만 아십니까? 참 재미있어요. 때로는 모습 불이고 다니는 게 좀 거주장스럽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가 많아서 못 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고가 어디 불을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지구가 쉼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도 지금 쉼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놓고 또 밀고 또 놓고 또 밀고 이렇게 걸을 걷는 것과 같이 그냥 우리는 수레가 돌아가듯 돌아가요. 정맥 동맥이 자나깨나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업 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 업식이 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 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장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일체의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정진하려면 내 내면의 곳을 토굴 삼아 정진하세요

29면에서 계속

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제자리애다가 되놓으면 돼요.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형성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 만 놓이 살려 줄니까, 뺏어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되놓고 '응,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하고 딱 집어던지고선 나는 슬슬 웃으면서 그냥 슬기롭게 살지 못할 때에 신경 쓰고 아등바등하고 그럴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왜 이상스럽게 살니까? 돈도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로 돈 만들어서 소꿉장난 하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히! 찢고 닦고 하던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 다 거두어 가는데 뭘 짚어지고 다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틀림없이 쓰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쓸 때에 공색하지 않게, 쓸 때에 꼭 쓰게끔만 된다면 그것은 이 황자 부럽지 않은 거예요.

허허,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절에 올고불고하면서 왔어요. 애가 다섯인데 남편은 죽었어요. 전세를 들었다가 다 까먹고 사글세로 들었는데 사글세조차 다 까먹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라고 그래서 추녀 밑에다가 짐을 다 싸 놓고서는 울면서 왔어요. 비는 부실부실 오는 데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그냥 팍 찢을 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죠. '네가 있다면 네가 줄 것이고 네가 없다면 못 줄 거야. 네가 있으면 쥐!' 했어요. 정말이예요. 그것은 그렇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눈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비가 내리는 그 가을에 그렇게 된 걸 보니까요. 그랬는데 울면서 그냥 잤죠. 인제.

그리고 조금 후에 누구 집에 뛰어가서 전화를 했는데 돌돌돌 말린 신문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낼 때 뭐 막기라도 한다고 그 신문을 들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펴 보니까 거기 돈이 잔뜩 들어 있었다잖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냐고, 경찰서에 갖다 주느냐 어쩌느냐 그러기에 "아니다.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너 준 거야. 너 준 거니까 내가 방 얻어." 그랬죠.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 이론으로나 학술로다 대단하게 알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뭐 달라져 죽었어요?

조금만 저거하면 '홍, 사랑 언제 했더니!' 하고선 그냥 배신들을 하고 그냥 온통 죽어라 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예요?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열 개를 꿸고 먹더라도 같이 떠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비이고 사랑이예요.

부처님 법을 별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곤충에서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여래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쳐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빠짐없이 그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마음으로써, 우리가 이롭게 부처라는 것도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

도록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은 본래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그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그 씨앗이 되남아서 그 이듬해에 또 먹고 또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하듯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길로 비유를 해서 그렇다 '떡 하나 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먹고 되남는다.' 하는 뜻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들어 보시며) 이 컵을 컵으로만 보시는데 이 컵을 봤다 하면 컵 아닌 컵이 있습니다. 컵 아닌 컵이요. 그 컵이 아닌 컵은 우주를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셔야 이 뜻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런 것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그놈이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되게 하는 놈이 그놈이니까 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고 구멍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은 고 구멍밖에 없어요. 판 구멍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 구멍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게 과거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야만이 현재에 다가오는 모든 걸 타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고 현재에 모두 걸림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대지를 하려면, 대우주를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셔야 이 뜻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뉘는데 어떤 거 될 때에 여자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부처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소견으로 모습만 보고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안 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자도 보든 남자로 보든 무슨 탓할 게 있겠습니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를 탓을 합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그냥 주어지 대로, 걸음 걷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데 뭐 그렇게 트집이 많습니까? 여자라고 임신여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허,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여자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자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저 한마음으로 전부 좋게 살아야죠.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의 자리가 누생의 은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장부 대자유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질문자2(남): 스님께서 토굴이나 조그마한 암자 또는 자연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서 고행과 양행정진으로써 득도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가불자들도 선방이나 또는 선사의 지도 없이 수행을 해도 득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득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수행하는 데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그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볼 때는요, 토굴이나 암자나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도 토굴이예요. 우주가 자리도 토굴인데 하물며 그 마음을 그렇게 작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두 정진을 하려면 내 내면의 곳을, 즉 말하자면 내면 집을 내 집으로 삼고 정진하세요. 이 몸뚱이가 집이라면 그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놈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진하시라고요. 그러시면 뭐 따로 토굴 찾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질문자2(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꼭 선방이나 스님들의 지도 하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수행을 해도 득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예,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 위 질문은 1994년 11월 13일 국내자원봉사회에서 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도리를 이론이나 학술로다 대단하게 알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분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모두 판 사람들더러 물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럼 질문 있으면 질문 들어 보죠.

질문자1(남): 이 보시금 말입니다. 오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한 보시금을 바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못 내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그 자녀들한테 준다고 생각하고요. 똥똥똥똥들 넣으십시오. 만약에 똥똥 내고도 똥똥이 없이 내 자식을 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똥똥 같 것입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의 감로법에 환희심이 일어나 이 법회장에 꽃비가 내리고 천상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 리 마나니 길 이렇게 오셔서 저희 부산 불자들이 위하여 법회를 열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수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의정을 하나하나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스님께서 떡 하나를 만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떡 하나가 되남는 도리를 알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를 나누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남는지요? 이 도리를 저희가 쉽게 이해되

그러니까 내가 그 답을 뭘로 했느냐 하면 씨 한 톨로 애길 했습니다. 씨 하나를 심어서 먹고 그 씨가 되남으면 또 먹고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無)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정말 여러분은 그걸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정말 나도 좋고 일체제불 전에도 아주 좋을 겁니다.

질문자1(남):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모았다면 비우고, 비웠다면 일임하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이 법문을 통해 마음을 모으는 것은 간절하게 '주인공' 하는 것이며, 비운다는 것은 '주인공의 뜻으로' 라고 되놓는 것이고, 일임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이끌어' 하고 한생각 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네, 아무렇게나 하시더라도, 그 구멍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저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으세요. 내가 번뇌가 있느니 답답하니 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놓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남녀가 둘이겠습니까? 또 남녀가 평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계종의 중풍은 아직도 비구 비구니 하며 둘로 나누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여 비구니 스님의 대중 설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 개외 아니하시고 매년 국외와 국내 대법회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남녀가 둘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남녀가 둘이겠느냐" 이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까닭도 알아야죠. 천백억화신으로 응신이 돼서 모든 중생들에게 나쁠 때, 때에 따라서는 남자도 됐다 때에 따라서는 소도 됐다 때에 따라서는 작부도 됐다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 어른도 됐다 애도 됐다 늙은이도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果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티몰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